

*동산이 운문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운문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사도(査渡)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런 여름은 어디서 보냈나." "호남(湖南)의 보자사(報慈寺)에 있었습니다." "언제 거길 떠났지." "8월 25일입니다." "세 차례나 두들겨질 걸 참는 것이니 물러가라." 다음날 아침, 동산은 운문에게 문안드리며 물었다. "어제 세 차례나 맞을 짓을 했는데 대체 제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운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강서와 호남을 돌아다녔더니, 밥통같은 놈!" 동산은 이 말에 대오했다.

한형조 무문관 탐방

21 동산의 몽둥이

설봉에게 보냈다. 설봉은 그가 범상치 않은 그릇임을 알아보고 대중의 수좌로 삼았다. 운문은 선종 5가의 한 문호를 연 사람이다. 임제와 더불어 과격하기로 소문나 있다. 다음의 일화는 경건한 불자들이 승연하게 할 것이 틀림없다. 석가는 태어나면서 일곱

걸음을 옮기며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읊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운문은 이렇게 외쳤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를 몽둥이로 때려죽여 굶주린 개에게 던져 주었을 것이다." 진리는 석가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추구한 구도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권위에 대한 의존과 집착을 떨쳐주기 위해 그는 늘 몽둥이를 흔들고 다녔다. 그런 그에게 애송이 하나가 걸려 들었다.

동산수초(洞山守初 910~990). 이 사람은 조동종(曹洞宗)을 창시한 동산양개(洞山良介, 807~869)와는 다른 인물임을 우선 일러둔다. 동산이 가르침을 구하자 운문은 어디서 오는 길이라고 물었다. 앞에서 자주 보았듯이 선사에서 이런 물음은 예사롭지 않다. 내가 자동인형의 의태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넘어 건곤(乾坤)을 독보(獨步)하는 주인공으로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어디 그 증거를 내놓아보라는 다그침이다.



그림·이준석

*나 해가는 말한다. 운문은 그때 본분(本分)의 양식(糧食)을 주어 동산으로 하여금 살아남 길을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집안이 적요함을 면했다. 밤새도록 시비의 바다에 빠뜨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살펴해 주자, 동산이 곧 깨달았지만 그래도 똑똑했다고는 할 수 없다. 자, 어디 물어보자, 동산은 세 차례의 몽둥이를 맞아야만 했을까. 맞아야 했다면 늘어진 그대들도 함께 짐을 당해야 하고, 혹 그럴 일이 없었던 운문이 헛소리를 한 것이 된다. 여기서 사태를 분명히 인지한다면 동산과 더불어 깊은 한숨을 토할 것이다. *송하가 가로되, '사자가 새끼를 가르치는 것이 선

法數로 배우는 불교

<31>

칠번(七辯)



원성스님 작 '지대방'

생명의 목마름 적서줄 수 있는 깨달음의 언어능력 가지

의 수 많은 물음에 적중치 못한 대답을 한다든가 물음에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한 생각이라도 알음알이 굴러 대답을 했다가는 다시 스승이 내려 주는 지시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의 수행을 인가 받으려 찾아오자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로 물에 밀어넣어 버렸다. 낯선 물에 떠돌고 있는 제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스승은 이때 제자의 수행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정신도 못차릴 지경

에 있는 제자에게 공안을 마구던져 답을 들어 보면서 제자의 지혜를 측정하니 기가 참 노릇이다. 이때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적중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어야만 스승은 인가를 해준다. 이

람들의 언어가 남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의 물을 쓰는 것과 같다. 불보살의 언어는 땅에서 항상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항상 자신의 본심에서 자유자재하게 나온다는 점이다. 스스로도 목마르지 않고 모든 생명들을 다 적서 줄 수 있는 언어능력, 이것을 변재구족(辯才俱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곱가지의 칠종변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첫째는 첩번(捷辯)으로 말을 더듬지 않고 곧 바로 질문에 따라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신변(迅辯)으로 모든 사리에 통달하여 막힘없이 유창하게 설명해주는 능력이다. 셋째는 응변(應辯)으로 때와 상대의 근거에 알맞게 적절히 말해주는 능력이다. 넷째는 무소류변(無所流辯)으로 진리와 결합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이치를 설명해주는 능력이다. 다섯째는 무단진변(無斷盡辯)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말하여도 진리와 연결을 짓되 계속하여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섯째는 다풍의미변(多豐滋味辯)으로 한마디 말속에도 깊고 풍부한 뜻이 숨어 있는 이로 동료 부호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다. 일곱째로 최상묘변(最上妙辯)으로 음성이 맑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방에 잘 들리도록 사람들이 하여금 공경심이 나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와같은 칠종의 변재능력은 남에게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와야 얻게 되는 것으로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시비의 바다에 머물지 말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 말씀도 타파

가의 교육법. 새끼가 짙벽을 기어오르려 하면 발로 차 버린다. 권사리 날려주는 두번의 비발, 첫번 화살은 약하고 두번째가 무섭다.

동산은 안타깝게도 운문의 시험문제를 알아듣지 못했다. 세번의 노과심에도 탄소리를 하자 참다 못한 운문이 외락 소리를 질렀다. "이놈, 세 차례나 몽둥이를 칠 걸 내가 참는다." 동산은 얼떨떨한 얼굴로 물러나왔다. 밤새 그는 '시비의 바다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안고 땀을 흘렸다. 그 정도는 우직해야 가능성이 있다. 어릴때 질문을 알아듣는 척하거나 어법에 익숙해지면 진리의 문은 닫힌다. 다음날 아침, 번민에 찬 부스스한 얼굴로 동산은 운문에게 나아가, 대체 자신이 뭘 잘못 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조른다. "밥통같은 놈, 그런 꼴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돌아다녔느냐." 이 말에 동산은 식은 땀을 흘렸다. 시험문제가 뭐였는지를 알아들은 것이다.

해가 말한 대로 화살은 두번을 날아갔다. 몽둥이를 아끼겠다고 한 것이 첫번째 화살이고, 이런 머저리 밥통같은 놈 하고 내지른 것이 두번째 화살이다. 하룻밤을 고민하게 한 첫번째 화살은 약하고, 식은 땀을 흘리게 한 두번째 화살은 깊이 살을 쪼았다. 새끼 사자인 동산은 하룻밤을 짙벽을 오르려 기를 썼지만 운문은 그 애처로운 노력을 발로 차버리는 비정함을 보였다. 그 무서운 짙벽의 공포와 고통을 거쳐 나와 동산은 천지간에 자유를 얻고 적막할 뻔한 운문의 가문을 지켰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24

패러다임 파괴

김용훈

이 글은 초등학교, 중, 고 그리고 대학, 대학원까지 수학을 공부해도 수학 공부한 글이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불교적인 답이다. 선(禪)에는 무서운 말들이 골잡 등장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부모를 만나면 조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임제록). 이 내용은 물론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모, 조부모, 부처의 가르침까지도 부정하고 스스로의 경지를 세우려는 적극적인 뜻이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스승과 부모, 그리고 사회의 규범 속에서 성장해 간다. 갓난 아기가 늙대 사회에서 살면 늑대처럼 행동한다는 실례도 있다. 갓난아이는 아무런 정신적 오염이 없이 백지와도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나 날마다 주위로부터 곁집이 인연의 파도가 몰아친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도 부모, 학교, 사회 등으로부터 익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29

없이 한국어로 하게 된다. '언어와 사고' 또는 '언어의 사상의 화석'이라는 언어학상의 경우도 있을 정도다. 그것은 이미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조상,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사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나는 이미 내 자신의 것이 아닌 남들이 형성해 놓은 가치관에 의해 좌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불경 시대의 가치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었다. 무의미해진 공산주의 가치관도 있다. 한 시대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

말은 들을 수 없다. 그 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틀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누군가 천재가 틀을 정해 놓으면 그 후계자들은 모두가 그 틀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가령 원시의 미개인 사회에서 처음으로 수학자가 나와 2+2=4, 2+2+2=6, 2+2+2+2=8, ... 이라는 식으로 덧셈 법칙을 발견했고, 그후 모두가 그런 수학을 배웠

표현했다. 곱셈 공식을 발견한 사람은 덧셈 공식을 만든 스승의 생각을 파괴하고 수학의 세계를 한 차원 올려 새로운 경지에 도달시킨 것이다. 즉 스승을 죽인 것이다. 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스승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경지를 전개할 때 일가를 이룬다고 한다. 아무런 많은 남의 지식을 주어도 모자 자신의 세계에 이르지 못함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어떤 이론도 절대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불자에게 부처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것마저 죽이는, 곧 부처의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용기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이 사실은 곧 인간의 무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각(大覺)을 얻는 일이다. 그 가능성은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처를 죽일 수 있고 어떤 천재가 수립한 대이론(패러다임)도 파괴할 수 있다. 곧 수학(과학)도 무한의 발전이 가능해진다.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이 현실 사회가 극락 세계가 될 수 있다. 어찌보다 하늘이, 오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한다. 그 믿음을 갖는 일이 곧 운수리에 자비의 빛이 총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수학도 발달시킨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모든 학문 스승의 틀 파괴 새 경지 전개 "불성있다" 인간의 무한 가능성 인정

관들이 많다. 지금 나를 예워싸고 있는 가치관은 나의 자유로운 사유, 절대 경지로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절대적 경지를 목표로 하는 선(禪)의 세계에서는 모든 선입견,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눈으로 자연의 섭리, 동식물 등 모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20세기 최대의 과학사(수학사)학의 업적으로 T.코의 패러다임 이론이 있다. 수학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천재라는

다. 그러나 2+2+2+.....+2 틀 차례로 더해갈 때 일일이 더하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새로운 천재가 나와 구구단을 발견한 것이다. 2x2, 2x2,2xn 이런 식으로 곱셈을 알게 되면 상당한 계산 능력이 향상된다. 수학사는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왔을 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은 지동설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쿤은 이와 같이 과거의 이론에서 벗어나는 일을 패러다임 혁명이라는 말로

회계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불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 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정점사>로 연락하세요
 도서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출판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아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량관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 요점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 등
 -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9월 1일 ~ 10월 6일
- 개강일시 : 1997년 10월 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포교과정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2천만의 깨달음을

김수명으로부터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